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랜 세월 동안 권위는 규범의 영역에서 도덕이 갖춰야 할 본질로 이해되고 있다. 실재론자인 파퓰에 따르면 도덕적 규범은 인간의 사회적 필요를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도덕적 진리는 비자연적 실재에 기반할 때만 보편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자연적 실재는 자연적 실재와 달리 경험적으로 관찰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신, 영혼같은 종교적 실재 또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라는 도덕 명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진리는 인간 경험을 초월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의 기능에 근거한 규범적 주장의 정당화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감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요구받는 존재이며, 그러한 판단이나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감, 이타심, 분노와 같은 도덕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 욕구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도덕적 감수성은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행동주의적 관찰을 통해 포착된다. 도덕적 규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도덕적 감수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은 언어 능력이나 상상력과 같은 감수성 외부의 실재에 근거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은 복잡한 규범을 정교한 언어 능력을 통해 논의할 수 있고, 어떠한 규범을 준수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상상력을 통해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감수성에 기반한 반성의 결과가 도덕적 실천 과정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의 권위는 도덕의 실천적 기능에 의해 정당화된다.

인간은 도덕적 감수성과 같은 친사회적 감정을 가지고 종(種)으로서 도덕적 의무의 주체로 간주된다. 도덕적 규범을 이해하거나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나 어떠한 공감능력도 갖추지 못한 외계생명체는 도덕적 감수성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은 도덕적 입증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입증이란 도덕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은 종종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도덕적 실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 누군가는 실천 과정을 의심할 수 있다. 도덕적 입증은 도덕적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다.

도덕의 본성에 관해 키치는 실재론자와 달리 도덕적 진보가 도덕적 진리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다. 도덕적 규범은 그 규범이 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이때 도덕적 진리는 진보적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시점에서 안정된 부분이며, 도덕적 실천의 부산물이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한, 그것은 권위를 가진다. 키치가 말하는 도덕적 진리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와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논쟁 속에서 도전받는 규범도 우리의 도덕적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규범의 정당성이 도덕의 기능과 그 기능의 개선에 근거한다면 비자연적

인 도덕적 실재를 요청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갖는 규범적 속성이 도덕이 발휘하는 기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도덕의 권위에 대해 더 본질적인 차원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자연적 도덕적 실재를 배제하고서 도덕적 판단이나 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잔여 불안’이라 한다. 잔여 불안 상태에서는 도덕적 감수성과 독립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참인 것을 믿어야 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카치가 말했듯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표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참인 명제를 믿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반대를 믿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비자연적인 도덕적 사실이 도덕의 권위의 조건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도덕적 감수성은 관찰 가능한 자연적 실재이다.
- ②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친사회적 감정이 아니다.
- ③ 도덕적 감수성이 결여된 종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도덕적 실천 과정을 의심하게 되면 잔여 불안에 빠질 수 있다.
- ⑤ 도덕적 진리가 도덕적 진보에 비해 본질적이라는 견해에 대해 실재론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2.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험이 가능한 자연적 실재와 달리 비자연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덕이 갖는 권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
- ② 도덕적 감수성과 이기적 욕망은 서로 모순되므로 인간은 도덕적 실천 과정에서 새로운 도덕적 문제에 직면한다.
- ③ 인간은 친사회적 감정을 가지며, 고도로 발달된 언어 능력을 통해 규범이 잘 지켜진 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④ 도덕은 종종 우리에게 행복을 줄어줄게 하는 행위를 명령하므로 도덕적 입증의 대상은 규범의 정당화를 의심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 ⑤ 비자연적인 도덕적 실재를 가정하지 않아도 도덕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인간 역사의 풍파 속에서 진리를 일종의 균형점으로 설정해 온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도덕적 진리는 진보적 실천의 결과이다. 그러나 진보의 과정에서 나타난 진리 중 일부는 그것이 “왜” 진리인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실천의 맥락을 파괴할 정도로 근원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실천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절대적 핵심은 변동 가능성의 바깥에서 존재해야 한다.

B: 도덕의 권위를 실천적 문제 해결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설명은 인간 중심적 한계 속에서 도덕의 본질을 협소화하며, 진정한 권위의 본질적 기반을 결여한다. 이러한 판단의 기초는 무엇에 연유하는가? 비자연적 실재가 없다면 도덕적 권위는 결국 순환 고리를 끊임없이 맴돈다. 규범이 단순히 협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효용이 소멸될 때 권위 역시 사라지게 된다. “타인을 해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명제는 역사적 유용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리라는 초월적 차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인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고 그것이 도덕적 진리와 권위를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 ① A는 도덕적 진리가 도덕적 진보보다 더 본질에 가깝다고 본다.
- ② A는 도덕적 진리가 가진 규범성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도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서 키처와 관점을 달리한다.
- ③ B는 도덕의 실천적 기능이 도덕적 권위 확보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B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서 키처와 견해를 달리한다.
- ⑤ A와 B는 모두 권위를 가지지 않는 도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데서 키처와 견해를 같이한다.